

BORYUNG **BORYUNG**
 보령홀딩스 보령

‘보령의사수필문학상’은 의사들이 직접 쓴 수필을 통해 생명과 사랑의 의미를 널리 고취하고자
 (주)보령이 제정한 상으로 2024년 올해 20회째를 맞았습니다.
 ‘한국수필문학진흥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대상 수상자는 수필 전문 잡지인 <에세이문학>을 통해 작가로 등단하게 됩니다.
 보령홀딩스, (주)보령은 앞으로도 ‘의사수필문학’의 진흥을 통해
 의료사회와 대한민국 문화사업 창달에 기여하겠습니다.

www.boryung.co.kr

2024



표적 항암제와 사랑의 역사 · 신달식
 전이(轉移) · 임야비
 부재(不在)의 빛 · 송준호
 거리두기 · 안희준
 저는 항상 여기에 있으니깐요 · 임미정

그렇게 청년이 의사가 된다 · 강상록
 거즈 아홉 장 · 문운수
 빛진 자의 마음으로 · 이영준
 다시 새해 첫날 · 주영만

BORYUNG

보다, 더⁺

고혈압 환자는

보다, 더 자세히 봐야 합니다.



2024

	제	2	0	회	
			보	령	
	의	사	수	필	
		문	학	상	
		작	품	집	

수필은 마음의 산책이다.
그곳에는 인생의 향기와
여운이 숨어 있다.
(피천득의 '수필' 中)

매년 마주하는 글 속에는 의사 선생님들의
진지한 고뇌와 열정이 가득합니다.
미려함은 덜할지라도 생명에 대한 경외가 느껴집니다.
어쩌면 그것이 수필문학의
진정한 의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의료 현장에서
묵묵히 사명을 다하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 작품집을 발간합니다.

의사 대상으로 배포되는 책자입니다

발행일 2024년 12월 3일
발행처 보령출판스 · (주)보령
편집 · 인쇄 바이차이
www.boryung.co.kr

2024

제	2	0	회																
보	령	의	사	수	필	문	학	상		작	품	집							
차	례																		

- 대상** ————— 08 표적 항암제와 사랑의 역사
신달식 인천병무지청 · 내과
- 금상** ————— 14 전이(轉移)
임아비 의사
- 은상** ————— 21 부재(不在)의 빛
송준호 인하대병원 · 신장내과
27 거리두기
안희준 울산대학교 강릉아산병원 · 혈액종양내과
- 동상** ————— 34 저는 항상 여기에 있으니까요
임미정 도담정신건강의학과의원 · 정신건강의학과
40 그렇게 청년이 의사가 된다
강상록 더숨내과의원 · 내과
48 거즈 아홉 장
문윤수 대전을지대학교병원 · 외과
56 빛진 자의 마음으로
이영준 삼성이영준비뇨기과의원 · 비뇨의학과
62 다시 새해 첫날
주영만 우리내과의원 · 내과
- 68 심사평 | 통찰력과 인품의 향기
손광성 (사)한국수필문학진흥회 고문
이상규 (사)한국수필문학진흥회 회장
오세윤 김애양 이해연 (사)한국수필문학진흥회

제	2	0	회
보	령		
의	사	수	필
문	학	상	

표적 항암제와 사랑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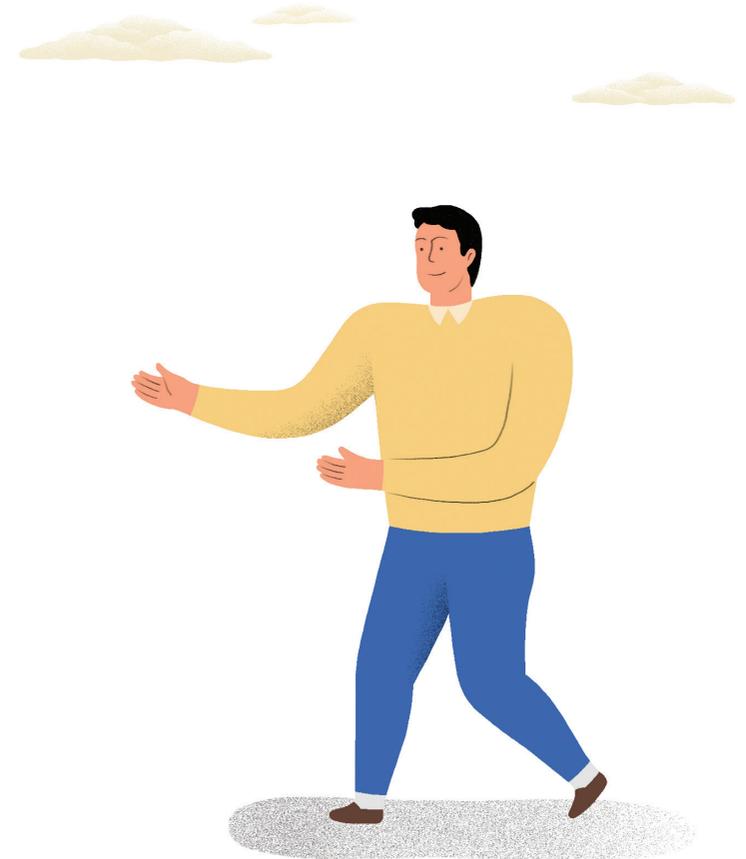
신달식 인천병무지청 · 내과

대	상		
---	---	--	--



월요일 아침, 나는 두 자매를 옆에 두고 어려운 말을 꺼내려 하고 있었다. 여든두 살 할머니의 딸들이었다. 폐암 말기인 환자는 두 종류의 항암제를 써본 터, 저번 주부터 기운이 없더니 며칠 사이 혈액검사가 제멋대로 오르내렸다.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했다. 남겨질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가슴 아픈 말을 해야만 했다.

모니터에 차트를 띄우니 암호처럼 빼곡히 의학 용어가 적혀 있었다. 나는 삼년 전의 사진에서부터 설명했다. 우측 폐 상엽에서 시작된 종양은 가슴의 뼈를 타고 온몸으로 퍼졌다. 처음에는 표적 항암제를 사용할 수 있는 유전자 변이가



발견되어 일 년 반이나 먹는 약으로 버텼다. 하지만 이내 경과가 나빠졌고, 몇 번의 폐렴이 지나갔다. 우리는 세포독성 항암제로 계획을 변경했고 총 다섯 번의 입원 치료가 이어졌다. 그 마지막이 지난 달이었다. 다시 찍은 사진에서 복막에 새로운 전이가 발견되었다. 더 이상 무리한 치료를 권유하지 말아야 했다. 곧 임종이 찾아올 것이 자명해 보였다. 눈앞에서 슬픈 미래가 아른거렸다.

창밖으로 5월의 햇살이 환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지난주에 전화로 언질을 주었지만, 직접 마주한 두 딸의 얼굴에는 눈물이 열매처럼 맺혀 있었다. 황망한 마음에 나는 입을 떼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애꿎은 검사 창들을 뒤적이면서 무거운 숨을 참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확인하지 않은 검사 결과를 마주쳤다. 조직검사는 다시 할 수 없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처방한 혈액검사였다. 결과 보고 시각은 오늘 아침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 자리에 얼어붙어 나는 몇 분 동안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T790M 유전자 돌연변이 양성. 누군가가 지나치면서 나를 보았다면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침울한 표정에서 기쁨이 솟아나더니 곧 전화를 걸고 소리치는 모습을 발견했을 테니까. 나는 약국에 전화해 표적 항암제 타그리소의 재고를 확인하고 두 딸의 손을 맞잡고 마침내 말을 꺼냈다. 속아보는 셈 나를 믿어보라. 어머니 상황은 좋지 않으나 아직 포기할 상황은 아니다. 어찌면 조금 더 시간이 남아 있을지 모르겠다. 자매의 눈에 맺힌 눈물이 이내 쏟아져 내렸다.

미열과 요동치던 염증 수치가 이내 잦아들고 환자는 일주일 뒤 퇴원했다. 휠체어에 앉아 멀어지는 거구의 할머니를 바라보며 오래전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떠올랐다. 달처럼 둥그런 얼굴과 무 같은 다리를 가진 사람은 우리 외할머니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잠옷을 입은 나는 아이가 되어 발코니에 매달려 있다. 먼 골목을 바라보며 할머니를 목이 빠져라 기다린다. 거인 같은 몸에 뒤통뒤통한 걸음. 백 걸음도 넘는 거리에서 나는 딸기를 사 오라며 힘껏 소리친다. 할머니는 귀에 마술이라도 부린 걸까? 그 소리를 알아채고는 슈퍼로 방향을 바꾼다. 아무리 팔을 크게 벌려도 다 안을 수 없던 품. 코끼리 같던 무릎 안에서 나는 정말 행복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수백 개 갖고 있다고 떠벌려 자랑하고 싶다. 하지만 내가 추억하는 이야기는 이것 하나뿐이다. 시간은 나에게 더 많은 기억을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어머니 말씀에 따르면 할머니는 폐암으로 돌아가셨다. 기침 증세로 동네에서 엑스선 촬영을 하고 곧 대학 병원에서 폐암 4기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두 번 정도 항암치료를 받고는 혼수상태에 빠져 가망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이십 년도 더 된 이야기다. 기억나지 않는 어린 날의 일이므로 어머니의 말씀을 통해 상상력의 바퀴를 돌린다. 폐암의 뇌전이, 뇌부종과 혼수와 같은 끔찍한 단어들이 떠오른다. 당시 여섯 살이던 나는 병원에서 잠든 할머니를 안아보았다는데, 이 역시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다. 시간의 역사는 이토록 잔인하다.

나는 소년일 때부터 세상 모든 일에 호기심을 품었다.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비행기 조종사를 꿈꿨다. 빛과 물질의 비밀을 풀기 위해 물리학자가 되고 싶었다. 삶과 죽음의 이유를 알고 싶어 의사가 되었다. 물론 의사가 된다고

그런 거대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세상의 잔인한 진실만을 알게 되었다. 살아있는 이상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망 원인을 펼쳐놓고 보면 우리가 죽어야 할 이유는 끝이 없어 보인다. 불멸과 영생은 없다. 물리학은 이를 엔트로피의 법칙으로 설명한다. 우리가 늙고 병들어 가는 것은 우주의 구성 원리다. 가만히 놔두면 우리 우주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처럼. 애초에 삶이 죽음으로 향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난 이 우주가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진실로 우리가 이렇게 죽는 것은 당연한가? 아름다운 우리 삶이 끝나고 죽음이 다가올 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한없이 무기력해지던 어느 날, 나는 하늘에 얽힌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1964년 펜지어스와 윌슨은 우주 안테나의 잡음을 없애기 위해 열심히 먼지를 쓸고 닦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깨끗이 안테나를 닦아도 사라지지 않는 잡음이 있었다. 안테나 접시를 이리저리 돌려보니 이는 우주 모든 방향에서 들려오는 2.7K의 주파수로 밝혀진다. 물리학자들은 이것이 빅뱅 탄생의 메아리라는 것을 밝혀냈고 우주배경복사라고 부르기로 했다. 우주 탄생의 순간은 빛으로서 기록되어 모든 공간을 맴돌고 있다. 그 이후로 우리를 거쳐 간 모든 빛은 창공을 떠돌면서 관측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누구든지 높은 하늘을 바라보고 무언가 알아내려 한다면 우주라는 공간이 빛으로 쓰인 시간의 도서관이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 이 사실이 나를 위로했다. 내가 잊었으나 나를 지나간 모든 것들이 그 위에 있다는 것이. 신이 되어 모든 순간의 빛을 바라볼 수 있다면 알게 될 사랑의 순간들. 그것들이 읽히기를 바라면서 우주 공간을 맴돌고 있다는 사실.

여든두 살 할머니의 두 딸을 앉혀놓고 폐암 T790M 유전자 돌연변이의 임상적 의의에 대해 열변을 토하던 그날 아침에 나는 보호자로부터 멋진 말을 들었다. 우리 어머니가 착하게 사셔서 하늘에서 이런 복을 내려주신다는 말. 어떤 의사가 더 아름다운 말로 그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나는 그날부터 조금 다른 사람이 되기로 했다. 인간은 왜 죽어야만 하느냐고 신을 비난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에 더 좋은 질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할머니가 평생 착하게 살아서 두 번째 표적 항암제를 허락받는 일이 가능한가? 할머니의 사랑으로 내가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것이 가능한가? 이 두 질문에 모두 가능하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라면, 앞으로 당신은 더 멋진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을, 그리고 우리 우주가 원래 아름다운 곳이라 대답할 수도 있으리라. 그것들은 모두 빛으로 하늘의 시간에 기록될 것이다. 먼 훗날 누군가에게 읽힐 것을 기다리면서. 이건 우주배경복사가 알려주는 시간의 역사다. 어린 날의 기억은 희미해지고, 영원한 삶은 한낱 꿈이 되고, 우리는 모두 늙어 죽겠지만, 우리가 보낸 사랑의 순간들은 영원할 것이다. 별이 생기고 죽는 것이 시간의 역사라면, 우리가 만나서 보낸 시간은 사랑의 역사이니까. 매일 환자를 보러 병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즐겁다. 그건 우리 할머니를 다시 만나러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제	2	0	회
보	령		
의	사	수	필
문	학	상	

전이(轉移)

금	상		
---	---	--	--

임야비 의사

“늘 해주시던 대로, 알아서 잘해주세요.”

수년간 머리를 잘라 주셨던 원장님에게 말하며 미용실 의자에 앉았다. 인경을 벗고 거울을 희끄무레 바라보았다. 흰 가운을 목에 두른 나는 영락없는 의사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짧게, 단정하게 잘라주세요.”

자못 비장한 투로 원장님께 요구했다. 2월 중순의 밤바람이 까까머리 속을 에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의사 면허증과 군고구마 한 봉지 그리고 속옷만 서른 벌 든 가방을 들고 언제 나올지 모를 병원으로 들어갔다. 인턴 생활의 시작이었다.

햇병아리 의사의 첫 근무지는 소화기 내과 병동이었다. 3월부터 근무였지만 신

입 인턴은 2주 전에 미리 병원에 들어가 인수인계를 받아야만 했다. 전임자는 나를 24시간 데리고 다녔다. 각 병동 위치부터 창고 뒤편 흡연실까지, 매일 20시간 이 넘는 정규 스케줄부터 쪽잠을 잘 수 있는 자투리 시간까지, 교수님들의 취향부터 간호 보조 여사님들의 성격까지 알려주었다. 하지만 2주는 너무 짧았다.

전임자는 다른 병원 레지던트로 가야 했기에 시간이 촉박했다. 그는 나에게 환자 인수인계와 시술을 동시에 가르쳐 주기로 했다. 전임자는 초보 의사 티가 나면 한 달 내내 힘들 테니 최대한 경험 많은 의사처럼 행동하라고 했다. 고마운 충고였다. 뺨뺨한 흰 가운을 입고 들을 줄도 모르는 청진기까지 목에 걸었다. 그리고 가운 위 주머니에 새 볼펜을 색깔 별로 가지런히 꽂아 넣었다.

12층의 6인실 양지바른 창가 구석 자리. 검은 얼굴에 인상이 푸근하신 72세 할아버지. 간경화와 간암으로 장기 입원해 계신 분이였다. 정신도 멀쩡하시고 거동도 좋으시지만 복수(腹水)가 심해서 매일 복수 천자¹⁾를 받아야만 했다. 주기적으로 경동맥 화학 색전술²⁾도 받고 계셨지만 hopeless 즉, 가망성이 없는 분이였다. 전임자는 할아버지를 내 첫 복수 천자 시술의 대상자로 정했다.

1) 복수 천자(腹水 穿刺, Ascites Puncture, Paracentesis); 복강(배)에 복수 같은 저류액이 있는 경우 복벽에 튜브가 연결된 긴 바늘을 삽입하여 체외로 대량 배액하는 시술. 보통 간경화 환자의 복수 증상 때 진단과 치료 목적으로 자주 시행된다.

2) 경동맥 화학 색전술(TransArterial Chemo Embolization, TACE); 간 종양에 영양을 공급하는 동맥을 카테터 혈관 조영술로 찾아내어 종양에 직접 항암제를 투여한 다음 혈관을 막아버리는 비교적 간단한 치료법.

“새로 온 인턴 선생님이구나!”

작전 실패. 그럴 만했다. 어색한 자세로 주사기를 들고 있는 나는 누가 봐도 셋노란 병아리였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환하게 맞아 주셨다. 너무 오래 입원해 계셔서 그런지, 매달 초에 바뀌는 인턴에 대한 반감이 전혀 없으셨다. 할아버지는 한 달간 정이든 전임자에게 정겨운 작별 인사를 건넸다. 그 사이, 천자 준비를 마친 나는 주삿바늘을 풍선같이 부풀어 오른 검은 배에 찔렀다. 실패. 단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 바로 옆에 재시도했다. 할아버지는 비명을 삼켰다. 그 비명은 배를 타고 내려와 내가 꽂은 주삿바늘 속에 피로 맺혔다. 너무 당황해서 얼른 바늘을 빼고 거즈로 눌렀다. 너무 긴장한 나머지 손가락이 꼬이고 얼굴까지 창백해졌다. 안면에 신경이 다 얼어붙었는지 비처럼 쏟아지는 식은땀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젊은 의사 양반. 당황하지 말고. 내가 여기 오래 입원해 있었는데, 처음엔 다 그렇디다.” 할아버지는 식은땀에 빠져 의사 직전인 병아리를 건져냈다.

“할아버지. 반대편 왼쪽 배로 해볼까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지만 잦아버린 목소리는 이미 계이름을 잊었다.

“알아서 잘해주세요.” 할아버지는 내 부담을 덜어주려 지그시 눈을 감았다.

경험 많은 전임자가 했다면 고통 없이 단번에 끝낼 시술이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시술 의사의 교체를 요구하지 않으셨다. 세 번째 시도 끝에 튜브로 노란 복수가 밝게 밀려 나왔다. 튜브가 연결된 바닥의 수액 통으로 뜨듯한 복수가 팔



칼 쏟아졌다. 셋이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수액 통의 노란 아지랑이가 올라오면서 검은 풍선 같던 할아버지의 배가 서서히 꺼졌다. 비록 두 번의 실패는 있었지만 의사로서 첫 시술에 성공했다. 나는 크게 고무되었다.

대부분의 장기 입원 환자들은 월초에 교체된 인턴 때문에 작은 불편이라도 생기면, 여과 없이 불만을 표출했다. 욕설은 물론 얻어맞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수차나 고무도 잠깐이었다. 인턴 생활에서 감정은 사치다. 우선 살아남아야 했다.

한 달 뒤 나는 병원 전체에서 복수 천자를 제일 잘하는 의사가 되었다. 하지만 과로와 수면 부족으로 하루하루 쇠약해졌고 눈에는 황달까지 켜다. 속이 얼마나 탔는지 햇빛 한 뼀 안 받고도 거의 흑인이 되어 있었다.

양지바른 창가 할아버지는 하루가 다르게 어두워지는 내 얼굴을 볼 때마다 안쓰러워했다. ‘죽을 늙은이들 살리느라 젊은 의사들 다 죽어 나가네...’라고 하시며 노란 복수 통을 들고 나가는 나에게 고구마나 바나나 같은 식량을 챙겨 주었다.

일반외과를 돌던 5월이 되어서야 첫 외박을 받을 수 있었다. 3개월 만이었다. 들어올 때 입었던 두꺼운 외투를 입고 바깥으로 나가 보니 봄이었다. 우선 머리를 깎으러 단골 미용실에 들렀다. 원장님은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막 하산한 시커먼 구석기인을 보고 화들짝 놀랐다. 검게 딱 진 머리와 노란 눈을 가진 나는 개선 가망이 없는 상태였고 존재 자체로 미용실의 매출 하락을 부추기고 있었다.

원장님은 머리카락을 쓸고 있던 어두운 표정의 미용 보조 아가씨에게 슬그머니 눈빛을 보냈다. 수습 아가씨는 얼른 앞치마와 빗자루를 던져버리더니 곧바로

말끔한 미용사 가운데로 갈아입었다. 아장걸음으로 다가오는 거울 속 병아리. 나는 미용사를 교체해 달라고 원장에게 따지거나 당장 일어나 다른 미용실로 가지 않았다. 거울 속 셋노란 병아리의 뺨뺨한 흰 가운데 가지런히 꽃힌 새 가위와 빗 세트를 보았기 때문이다.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내 머리카락을 만지는 손가락 마디는 모두 탈골되어 있었고 목소리에는 창백한 오한이 돌았다.

“알아서 잘해주세요.” 환하게 웃으며 지그시 눈을 감았다.

짧았던 첫 외출을 마치고 인턴 숙소로 돌아왔을 때, 동료들은 내 뼈뼉뼉한 머리와 왼쪽 귀에 붙인 일회용 밴드를 보고 한바탕 놀려댔다. 하지만 웃음도 잠시, 여기저기서 뼈뼉이 울리고 우리는 모두 각자의 병동으로 신속하게 흩어졌다. 지하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 소화기 내과를 들고 있는 동료에게 매일 복수 천자를 받는 할아버지의 안부를 물었다. 할아버지는 간암이 뇌로 전이되어 신경외과 병동으로 전실했고, 그 뒤는 모른다고 했다.

몇 분 후, 일반외과 대회진을 따라 돌다 12층 6인실을 스쳐 지났다. 할아버지의 창가 구석 자리에는 젊은 여자 환자가 누워있었는데, 따듯한 봄의 노란 햇살이 자리 위로 한가득 쏟아지고 있었다.

1년의 인턴 생활을 마치자 다시 봄이 왔다. 레지던트 면접을 위해 또 오랜만에 단골 미용실에 갔다. 예전에 내 머리카락 끝과 귀 끝을 함께 잘랐던 미용 보조

분은 상당히 멋진 헤어 디자이너가 되어 있었다. 그분 앞으로 대기 손님이 둘이나 있어서 지저분한 신석기인은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전번처럼 미용실에 민폐를 끼칠 것 같아 창가 구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창밖에는 노랑이 가득 찬 봄 아지랑이가 피어올랐다. 머릿속에 무엇인가 아른아른할 때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알아서 잘라드릴까요?” 봄처럼 밝은 그녀의 목소리는 힘들지만 활달했고, 손가락은 바쁘지만 노련했다.

“네, 알아서 잘해주세요.”



제	2	0	회
보	령		
의	사	수	필
문	학	상	
은	상		

부재(不在)의 빛

송준호 인하대병원 · 신장내과

2001년 가을이었다. 초임 교수 발령받고 성남의 부속 병원에서 근무 시작한해 정 할머니를 처음 만났다. 해남에서 아들 따라 성남까지 온 할머니는 콩팥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셨다. “그 콩팥이라는 거시 망가지면 어떻게 되는디야? 죽남?”

투석하시면 잘 사실 수 있다, 투석에는 혈액과 복막 두 가지가 있다, 긴 설명을 천장을 바라보며 묵묵히 듣고 계시더니 “그럼 혀야지, 어떡하남”하고 툭 결정하셨다. 할머니는 복막투석을 택했다. 배에 투석관을 심어드리면 집에서 매일 투석액을 갈아 주고 한두 달에 한 번 병원에 오시면 되는 것이다.

점심을 먹으러 나가는 길에 나무 그늘 밑 의자에 앉아 있는 할머니를 봤다. 아들이 거기 쉬고 계시라 한 모양이다. 인사드리니 얼굴을 쓱 닦으며 “밥 먹으러 가시는 감?”하고 씩 웃는다. 흐릿한 가을 햇빛에 반사되는 작은 빛은 틀림없

는 눈물이었다. 남쪽 끝에서 먼 길을 아들 따라다닐 팔자가 왜 서글프지 않겠는가? 툭툭 던지는 쾌활한 어투 때문에 삭인 아픔과 자기연민의 속내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리라. 남편을 잃고 해남에 내려가 자매를 업고 안고 키웠다 했다, 난 데없는 투석 이야기에 하늘이 무너졌으리라.

2년 뒤 병원이 문을 닫게 되었다. 1980년대 어두운 시대의 사정으로 잉태된 분쟁의 씨앗이 커져 법적 소유권이 바뀐 것이다. 인천 본원으로 복귀하면서 환자분들을 정리하게 되었다. 할머니는 해남에 계시니 그쪽 대학병원으로 보내드려야겠다 생각했다.

“병원도 망하는 감?” 그런 거 아니라 설명해 드려 본 들 싶어 가만히 있으니 위로하려 하신다. “우리 아들도 한 번 쫓딱 망했시. 올매나 속상하던지... 그래도 지나면 괜찮혀.”

“어떻게 하시겠어요?”

“멀 어찌. 선상님 따라가야지... 나가 수절도 했는디...” 이견 수절 같은 게 아니라고 설명드렸다. “괜찮혀. 딸이 또 인천 살어. 아들이 그러는디, 고속도로 주욱 달리면 거기나 여기나 같디여.”

몇 년이 지나 연수를 가게 되었다. “미국 어디 간디야?... 돌아오는 오시는 감?” 잠시 말이 끊어지시더니 살짝 심통이 나셨다. “선상님. 미국 가시면 갓김치는 영 못 드시겠네?”

언젠가 할머니는 큰 유리병에 갓김치를 재어 넣어 보물인 양 보자기로 단단히

싸서 진료실 책상 아래 밀어 넣고 가셨다. 갓김치는 난생처음이었다. 어머니의 척박하고 고집 센 경상도 김치와 장모님의 청량하고 시원한 황해도 김치가 다인 줄 알았지,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다.

뽀뽀한 질감과 혀를 찌르는 역센 맛에 한두 번 먹고 냉장고 깊숙한 곳에 넣었는데, 툭 쏘는 맛이 머리를 맴돌아 몇 번 꺼내 먹다 보니 맛을 들여 버렸다. 세상 김치는 다 맛이 다르고 다 맛있다. 게다가 김치는 만든 사람을 닮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공연히 그거 맛있었다 치레했다가 신이 난 할머니가 요 때가 제일 맛나다며 늦가을마다 큰 병에 담아 오시게 만들어 버렸다.

연수를 마치고 다시 뵈니 얼굴이 약간 더 검어졌다. 주름도 더 깊어지고 늘어졌지만, 역세고 투박했던 눈매에는 세월의 세레인 듯 부드러운 빛이 덧씌워졌다. 간만에 주치의 본다고 영국 여왕처럼 도도히 들어오시더니, 얼굴을 보자마자 금세 희색이 도신다. 털퍼덕 의자에 앉자마자 입담을 여셨다.

“선상님. 나만 남았어.”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우리 마실에, 전에 나 투석한다고, 금방 갈 거라고 입방아 찧던 것들 먼저 다 갔어...” 딸이 툭 친다. “좀 고만...”

“원래 투석하면 오래 사는 감?” 세련된 치레나 대화 같은 건 서로 거리가 먼 사이였다. 그래서 잘 안다. 그것이 고맙다는 마음을 에두른 표현이라는 걸... 미국 가 있는 동안 나 잘 지냈으니 꽤넘치 말라는 격려라는 걸...

할머니가 던진 말은 투석을 시작하는 환자분들께 꼭 들려드리는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복막투석으로 마을 최고령자가 된 해남 할머니’ 이야기는 시간이 가



면서 마늘 먹고 인간이 된 용녀 같은 신화가 되어버렸다. 이 소소한 이야기는 열 번의 위로와 백 가지 설명보다 더 큰 마력이 있었다. 아무리 낙담에 빠진 환자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입가에 용기의 빛이 스쳐 갔다.

15년이 넘어가자, 할머니의 복막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이 보였다. 메르스의 난리 통도 그리 잘 넘기시더니 20년이 되어가자 자꾸 복막염이 왔다.

두서너 번 연거푸 입원 하시더니 점차 잔이 빠지시는 모양이다. 여든이 훌쩍 넘어 이제는 어디 다니시기도 힘들어하신다고 딸이 알려줬다. 아무래도 이제는 혈액 투석으로 바꾸어야겠다 하니 “나 보기 싫은 갑다”라고 섭섭한 표정이 역력하다.

“올 어머니, 선생님 보고 싶어 어찌”라고 말하는 딸에게 짐짓 눈치 주고 함께 달래고 설득해 결국 혈액투석으로 바꾸어 해남으로 돌아가셨다. 어떤 사정인지 아들도 귀향한다고 하였다. 이제부터 그쪽에서 만난 선생님과 아들이 할머니를 지켜주리라.

한동안 딸이 자기 일로 병원에 오면 외래에 얼굴을 내밀고 안부를 전해 주었지만, 코로나 팬데믹의 소용돌이 속에 그것도 끊겨버렸다. 할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 30대 중반이었던 나도 60을 코앞에 두고 있다. 세월은 모든 걸 부식시킨다. 가끔 마우스를 쥐 손을 보고 놀란다. 언제 이렇게 거칠어졌을까?

할머니는 나이 먹으면 손부터 늙는다고 했다. 내 손이 곱다고, 배운 사람 손이라 그렇다며 마른 장작 같은 손가락으로 슬며시 만져보기도 했다. “올 마을에 이런 손 있는 사람 있었어. 광주에서 공부하고 온 미술 선상이지야!”

금방 문을 툇 열고 나타나실 것 같다. 늙은 손부터 타박하실 게다.

우리는 모두 아이들을 키우고, 부모님을 모시고, 때로는 사랑하는 이를 떠나 보내며 삶을 익혀나간다. 의사들도 그러하다. 그러면서 점차 가려진 소망의 끈을 잡고 남다른 슬픔과 고통을 견뎌내는 환자들의 삶을 내 것처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마음이 열리면 환자들은 내가 알지 못한 것, 겪어 보지 못한 것들을 보여주고 가르쳐 준다. 평범한 소망, 꺾이지 않는 희망, 불굴의 의지... 이런 귀중한 것들을 누구나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걸 왜 처음부터 깨닫지 못 하는 걸까?

의사의 덕목은 조금씩 만들어지고 쌓여간다. 아이들이 사랑받으며 성장하듯 환자들의 믿음과 격려 속에 눈을 떠간다. 수많은 인연의 고리로 만난 환자들은 차트 속 이름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다. 마음속에 새겨진다. 그 새김 속에는 회한과 후회가, 보람과 긍지가 깃들어진다. 새겨진 모든 것이 의사를 만든다.

우리는 서서히 사라진다. 모든 만남은 헤어짐으로 이어진다. 헤어짐은 부재를 남기고, 부재는 마음 한자리에 비석처럼 남아 더 생생해진다. 처음 뵈 때 예순 후반이었으니 정 할머니는 살아 계셔도 아흔을 훌쩍 넘기셨을 터이다. 그 늙은 반생이 한 의사의 마음에 작고 잔잔한 부재의 빛으로 새겨졌다.

할머님이 마지막까지 사랑받으셨기를, 마음의 원을 모두 이루셨기를 빈다.



제	2	0	회
보	령		
의	사	수	필
문	학	상	
은	상		

거리두기

안희준 울산대학교 강릉아산병원 · 내과(혈액종양내과)

거리두기라는 말에 익숙해지기 훨씬 오래전의 일이다.

예년처럼 의과대학 학생들이 병원 실습을 나왔다. 나는 학생들에게 종양내과에 대한 교육을 하고 마지막 수업시간에 궁금한 것 있으면 편하게 질문하도록 했다. 한 학생이 내게 물었다.

“교수님은 종양내과 의사로서 어떤 게 가장 힘드세요?”

나는 대답이 선뜻 나오지 않았다. 힘든 일이 없어서는 아니었을 것이다. 회피하고 싶은 생각들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학생의 질문에 진지한 대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잠시 고민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거리두기”라고.

그리고 기억 속의 한 환자가 떠올랐다.

내 어머니 연배쯤 되어보이는 환자가 폐암 4기를 진단받고 항암치료를 위해

진료실로 들어왔다. 체구는 작지만 무척이나 억척스러운 삶을 살았던 듯 짙은 주름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다. 몇 가지 증상에 대한 나의 물음에 무표정으로 대답했다. 검사결과 환자는 표적항암제의 적응증이 되었다.

“종양세포에서 특별한 돌연변이가 발견되었는데 먹는 표적항암제에 잘 듣고 부작용도 보통의 항암 주사보다 훨씬 덜합니다. 힘든 상황이고 무거운 병이지만 잘 치료 받으면서 힘을 내봅시다.”

환자는 치료를 잘 받겠노라 했고 내가 묻지 않았지만 병이 나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도 했다.

기대만큼 항암치료 효과도 좋았고 증상도 많이 좋아졌다. 환자는 한 달에 한 번씩 외래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으며 순조로운 치료과정을 이어갔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환자는 예고없이 약속된 외래 진료에 오지 않았다.

한 달 두 달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여전히 환자는 더 이상 진료실에 나타나지 않았다. 수많은 환자 중 한 사람이었던 그는 그렇게 잊혀져가고 있었다.

대여섯 달쯤 지났을 때 환자가 다시 외래로 왔다. 그간 치료를 받지 않으면서 병세가 많이 나빠져 있음을 나는 한 눈에 알 수 있었다. 숨이 많이 찬 듯 숨을 몰아쉬고 있었으며 표정도 좋지 않았다. 타지에 사는 따님의 손에 이끌려 억지로 온 듯했다. 나는 그간 왜 진료를 보러 오지 않았냐고 다그치듯 물었다. 환자는 화가 난 듯한 표정으로 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아무런 말이 없었다. 내게 화가 났는지, 아니면 세상에 화가 나 있었는지.

한참을 말이 없던 환자는 내 앞에서 오열하기 시작했다. 몇 달 전 함께 살던

아들이 집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그렇게... 그렇게 그 길로 떠났다고 했다. 겨우 말을 이어가며 아들을 먼저 보낸 어머니가 살아서 무엇하며 치료가 무슨 소용이냐고 고통스런 울부짓음을 쏟아냈다.

나의 어떠한 말도 위로가 될 수 없고 어떠한 설득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았다. 나는 무기력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환자의 두 손을 꼭 잡아드리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고작이었다. 위로가 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잠시의 침묵이 흐르고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왔다.

“제가 기도를 해드려도 될까요?”

환자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부정하지 않는다고 느꼈다. 무어라 기도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진심으로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환자는 진정을 하고 따님의 설득으로 다시 치료를 받기로 결심했다. 몇 주가 지나고 환자는 안정을 찾아갔다. 병의 경과도 다시 회복세를 보이며 이전처럼 잘 지내고 있는 듯 했다. 궁금하셨던지 어느날 환자는 진료실에서 어느 교회에 다니느냐고 가볍게 내게 물었다. 진료 이외에 나의 사생활 영역에 대한 질문은 솔직히 반갑지는 않다. 내가 일에서 잠시 벗어나 있는 시간에 우연히 환자나 환자의 가족들을 마주치는 일은 조금은 불편한 일이며 일의 연장선상에서 있는 느낌을 받곤 했다. 조금은 불편한 상황이었지만 얼버무리듯 일러드렸다. 그러나 꼭 오시라는 말은 굳이 하지 않았다.

몇 주가 흘렀을까, 결국은 주말마다 환자를 마주하게 되었다. 반가운 마음과 부담스러운 마음이 공존했다.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병원이 아닌 나의 사생활의 일부인 영역에서 환자를 마주하는 일이 생긴 셈이다. 식사를 하고 계시면 자연스럽게 함께 앉아 식사하며 이번주는 아픈데는 없었는지, 약은 잘 드시는지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는 것에도 조금씩 익숙해졌다. 그렇게 매주 조금씩 편해지고 식사를 하며, 할머니가 지난 세월 살아온 얘기도 듣게 되었다. 할머니는 젊어서 홀로 되었지만 악착같이 살았으며 자식들을 열심히 키웠고 세 아들과 딸, 손주들도 잘 자라주었다고 했다. 할머니의 학창 시절에는 제법 똑똑하다는 말도 듣고 학생 대표를 한 적도 있다고 수줍은 자랑도 하시며 주름진 얼굴에 소녀같은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집에는 할머니가 돌보아야만 할 장애를 가진 아들이 있다는 얘기도 어렵게 풀어 놓으셨다. 끝까지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그렇게 2년 여의 시간이 흘렀다. 내겐 할머니와 조금 더 각별해지는 시간들이었다.

하지만 폐암이란 병의 예후는 기적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게 의학적 통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열심히 치료를 감내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의 병세는 나빠져갔고 추운 계절이 두 번쯤 지나갈 때쯤 할머니는 더 이상의 치료를 감당하지 못했다. 마지막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 마지막 회진이 되었던 그날 나는 할머니와 할머니의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고 나 역시 마음의 준비를 했다. 할머니는 내겐 특별한 환자였지만 나는 장례식장에 갈 수가 없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살아계신 동안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것



까지가 나의 역할이다. 떠나신 환자들을 오래 기억하는 것은 내가 더 빨리 심적으로 지치는 일이라며 나 자신을 변호했다.

장례를 마치고 몇 주 후 할머니의 따님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자 방문했다. 따님을 마주하고 위로를 건네기도 전에 내 눈에서 눈물이 터져나왔다. 그리고 나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울고 말았다. 의사가 망자의 딸 앞에서 정신 없이 흐느끼는 이상한 그림이 펼쳐졌다. 나는 눈물과 콧물이 뒤섞여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위로의 말을 건네기는커녕 내가 위로를 받고 있었다. 나는 억지로 감정을 추스리고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의사는 돌아가신 환자의 가족을 위로하고 늘 객관적으로, 때로는 냉정해야 하는 의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던 나는, 성숙하지 못한 모습의 나 자신을 보는 것이 너무도 부끄러웠다. 그 부끄러움은 환자와 거리두기에 실패한 대가였다.

종양내과 의사로 20년 째 살아오고 있는 나의 모습을 돌아본다. 말기암을 진단받은 환자들에게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늘 나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확진이 되었으며, 완치가 불가능하고, 치료의 목적은 살아있는 시간동안에 증상을 조금 완화하는 것이며, 그래서 생명의 남은 시간을 아주 조금 늘리는 것뿐인 힘든 치료를 감내해야 한다는 말을 해야 한다. 하지만 절망하지 않고 치료에 임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야 하고, 한편으로는 불가능한 희망을 심어주는 책임지지 못할 거짓말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 내가 매일 하는 일이다. 나는 완치가 불가능한 암환자들과 함께 항암치료를 이어가야 했으며 결국은 이기지 못하는 싸움에

서 나만 살아남는 일에 익숙해져야 했다. 그리고 며칠에 한번씩 겪게 되는 내겐 특별했던 사람들과의 영원한 이별을 덤덤히 받아들이고 나는 또 나의 일을 해 나가야 한다. 나의 가정으로 지쳐 돌아가는 시간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나의 우울감을 가족들에게 전염시키지 않아야 한다. 환자들과 항암치료를 이어가며 짧게는 수 개월을, 길면 수 년을 반복해서 만나며 함께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절망과 슬픔을 공유하고 공감해야 한다. 그렇게 나의 환자들은 내게 더욱 특별한 사람들이 되어간다. 그리고 환자와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나는 그들과 이별할 때 힘겨움의 무게를 더욱 쌓아간다. 그러하기에 내가 이 일을 오래 견뎌내며 할 수 있기 위한 나의 방어기제는 거리두기였던 것이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한 물리적인 거리두기에 익숙해진 시대에 살고 있다. 오래도록 풀리지 않는 숙제같은, 의사와 환자간의 정서적 거리는 어디까지가 적절한 것일까. 결코 짧지 않은 종양내과 의사로서의 삶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나는 환자와의 정서적 거리두기가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는다. 오늘도 내일도, 늘 그러하듯 나는 환자들과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를 나누며 또 다시 가까워지고 있을 것이다.



제	2	0	회
보	령		
의	사	수	필
문	학	상	

저는 항상 여기에 있으니깐요

임미정 도담정신건강의학과의원 · 정신건강의학과

동	상		
---	---	--	--

봉직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개원 준비에 들어가던 때의 일이다. 진료 하던 환자들과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중 유독 이별을 두려워하는 이가 있었는데, 나라는 치료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지, 새로운 치료자와 잘 해 나갈 수 있을지 매우 두려워하였다. 나는 그녀가 다음 치료자와도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발전과 성장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했지만 그녀의 불안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으로, 내가 지금 당분간 진료를 해드릴 수 없지만 몇 개월 후 여기에서 아주 멀지 않은 곳에 진료실을 열 것이며 그녀가 새로운 치료자에게 적응이 안 되고 나를 필요로 한다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녀의 불안이 가라앉았다. 원한다면 찾아갈 수 있는 곳에 내가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껴서, 새로운 선생님과의 치료에 도전해볼 용기가

생긴다고 했다.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녀는 잘 지내고 있는지,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접근 가능한 곳에 존재한다면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고 두렵게 느껴지는 모험에도 도전할 수 있다. 혹시나 실패해도 위안받고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이다. 용기 내어 새로운 치료자와 관계를 맺으려는 그녀의 도전을 응원하면서도 기왕이면 그녀의 치료를 맡았던 내가 계속 그 역할을 제공할 수 있었더라면 더 좋았겠다 생각이 들었다.

그런 아쉬움에서 출발하여 마음을 다친 이들이 언제라도 나를 찾아올 수 있는 고정된 자리가 되도록 나만의 진료실을 오픈했다. 지역사회에서 의원을 연다는 것은 생각보다 진지한 다짐을 필요로 한다. 이 지역사회에, 이 장소에 평생 발을 붙이고 여기 거주하는 환자들과 함께 늙어가겠다는 결심이다.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싶다 해도 여간해선 어려울 테고 장기 여행은 아주 큰 마음을 먹어야 가능하다. 혹시 힘들거나 괴로워도 떠나거나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의 일생을 선택했다면 감내해야 할 몫이다.

나는 정감이 가는 지역을 찾아 나만의 스타일로 시스템을 구축했고, 다행히 많은 분들의 마음을 치유하도록 돕는 터전으로 자리 잡혔다. 2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그런 감사한 성과들이 있었고 하루에 수십 명의 환자들이 밝은 표정을 짓고 병원을 다녀가는 걸 보면 가장과 같은 뿌듯함을 느꼈다. 병원은 안정되게 운영되고 점차 발전하고 있었다.

하지만 잔뜩 긴장하여 병원을 만들어가던 시기가 지나고 여러 사건, 사고도 무사히 지나갔음에도, 어쩐지 나는 편안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잠 잘 시간, 밥 먹을 시간도 없던 개원 초기보다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머리가 멍하고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다. 진료를 하는 것은 숙달된 일이라 적절히 듣고 공감하는 반응을 하고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었지만 본래 내 자신과 분리된 느낌으로 하루가 훌쩍 지나가 있었다. 언젠가부터 잠을 자도 편하지 않았고 이명이 들리기 시작했다. 정신과 의사에게 이명이 흔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가 직접 겪게 될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새삼 귀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정신과 진료

에 있어서는 특별한 치료기구가 있지 않다. 내 귀와 입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 귀에 과부하가 왔는지 경고음을 내기 시작한 것이다.

고작 2년 지났는데 벌써 번아웃이 온 걸까? 사실 야간 진료를 따로 정하지 않았음에도 거의 매일같이 저녁 8시 넘도록 진료를 했으며, 점심과 저녁 식사를 제 때 먹기에도 벅찬 하루하루가 지속되어 눈에 띄게 체력이 떨어졌으니 가능성이 없지 않다. 환자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 직원들과 경제 시스템을 포함한 병원 생태계에 대한 책임감, 간간히 컴플레인에 대응하고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한 고민, 틈틈이 완수해야 하는 행정 작업 등 진료 외 여러 문제에



익숙해지는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무거웠다. 각오하고 시작했지만, 눈이 하얗게 쌓이고 벚꽃이 하늘거려도 이 작은 진료실에서 해가 질 때까지 틀림없이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에 가끔 숨이 막히기도 한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다. 매일 출근하면 예약 상황이 가득 차 있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크고 작은 고통과 갈등을 안고 나를 찾는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루하루 댐의 구멍을 막는 심정으로 진료실을 연다. 매일 늦게 퇴근하고, 돌아 가면 녹초가 되어 있으니 가족들도 걱정스러워한다.

주말을 앞둔 토요일 오후, 몰아치는 진료를 간신히 끝냈다. 마지막 처방 창을 닫고 나서 나도 모르게 큰 한숨을 내뿜는다. 파아... 그리고 깨달았다. 아, 오늘 아침에 들숨을 쉬고 나서 5시간 동안 멈춰 있다가 지금이야 날숨을 뱉고 있구나. 그야말로 잠수한 느낌으로 하루를 살고 있다. 숨을 멈추고 진료시간이 끝날 때까지 움...파!

헛웃음이 났다. 이렇게 잠수하듯이 몇 십년을 버틸 수 있을까? 개원한다는 것은 이 자리를 평생 지키겠다고 약속한 것인데, 이 약속 지킬 수 있을까?

그 날도 진료 마감 시간을 훌쩍 넘긴 8시쯤이었다. 불안에 사로잡혀 일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던 청년인데 어느덧 취직을 해서 이제 마감 시간 무렵에야 올 수 있다고 한다. 나는 당분간은 그리해도 되지만 나의 체력이 달려서 차후에 전체 진료시간을 줄일 수도 있겠다고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청년은 근심스럽게 이렇게 말했다.

“지치지 말아주세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지치지 말아달라는 그 음성에는 치료자를 상실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숨어 있었다. 내가 이 작은 방에서 매일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는 사람을 잘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수 개월, 혹은 수 년이 넘는 긴 치료기간을 성실히 이행하고 종결을 맺을 때가 있다. 이미 환자 분은 증상에서 회복된 지 오래고, 유지치료 기간 동안 어떻게 병을 이겨내는가 뿐 아니라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정들어 아쉽게 작별하는 순간이다. 더 이상 주기적으로 병원을 찾지 않아도 된다는 시원한 마음과 앞으로는 혼자 삶을 헤쳐 나가야 한다는 두려운 마음이 뒤섞여 진료실 떠나기를 주저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나는 가볍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곤 한다.

“저는 항상 여기에 있으니깐요.”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든든한 일인가. 여기 나의 작은 진료실이 그런 자리가 되길 바란다. 언제든 원하면 찾아와서 속엿말을 할 수 있고, 즐겁고 편안하게 마음의 비밀을 탐색할 수 있는 곳. 한결 같이 밝은 모습으로 그를 환대하고,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치료자가 있는 곳..... 나 역시 그런 곳을 갖고 싶다는 꿈을 꾸곤 했다.

잠수하는 마음이 아니라 유영하는 마음으로, 긴장했던 어깨에 힘을 빼고 깊은 숨을 내쉬어 본다. 과도한 부담과 책임을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한다. 주말에는 밀린 일들을 생각하지 말고 온전히 휴식을 취해야겠다. 나와, 나의 사람들을 위해 진료실을 오래 지켜 나가고 싶기 때문이다.

제	2	0	회
보	령		
의	사	수	필
문	학	상	

그렇게 청년이 의사가 된다

동	상		
---	---	--	--

강상록 더숨내과의원 · 내과

간이침대에 걸터앉아 하얀 불빛의 형광등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 불빛은 밝으나 빛이 들어차있는 이곳의 공기는 축축하고 차갑다. 각종 약품과 소독약 냄새에 환자의 침구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까지 더해져 흔히들 ‘병원냄새’라고 부르는 냄새가 난다. 희미한 불안과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결코 익숙해지지 않는 냄새. 아무것도 없는 새하얀 벽에 걸린 아날로그시계의 시침은 3시를 가리키고 소리 없이 움직이는 초침은 나를 재촉하는 것 같다. 마치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는 것처럼. 멍하게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집중이 힘들다. 졸리기 때문만은 아니다.

‘처치실’이라고 부르는 공간에 앉아있다. 온통 하얀 벽에 간이침대 하나가 놓여 있고 심정지 환자를 대비한 제세동기, 응급약물과 각종 기구가 들어있는 4단 짜리 카트가 덩그러니 놓여있는 공간. 이곳은 방이라기보다는 간호사실 옆에 딸린 텅 빈 구석에 불과하다. 새벽이라 복도와 병실은 온통 어둡지만 처치실만큼



은 누군가 인위적으로 불의 밝기를 올려놓은 것처럼 밝다. 하얀 눈밭에 비추는 햇빛을 맨 눈으로 볼 때처럼 하얀 벽에 비추는 형광등 불빛이 눈을 살짝 찌푸리게 만든다. 이곳에 누울 환자에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 경고라도 하려는 것일까.

‘처치’라는 것이 가벼운 치료의 느낌이지만 실제 처치실에서 시행하게 되는 그 ‘처치’라는 것은 생명을 급박하게 붙들어 매어 놓고 버티는 일인 경우가 많다. 인공호흡기를 위한 기관삽관, 대량수혈을 위한 중심정맥삽관, 최악의 경우 심장이 멈춘 환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등. 이곳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는 곳임에 틀림이 없다. 처치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질병은 취침 시간, 식사 시간 등을 배려하여 공격을 멈춰주는 관대한 상대가 아니므로 병동에는 24시간 의료진이 있다. 오늘 새벽도 취침 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질병의 갑작스러운 공격이 한 사람을 처치실에 눕혔고 어두운 병동 중 처치실에만 밝은 형광등이 켜졌다. 그리고 잠에서 깬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

모든 것이 어렵던 내과 전공의 1년 차, 3월이었다. 1년 차이고 3월이니까 사실은 전공의를 이제 막 시작한 초보 내과의사라는 말이다. 그날은 몇 주간 제대로 된 취침을 하지 못하고 각종 응급 상황에 시달리던 어느 평일 새벽 3시였다. 처치실에 누워있는 환자는 50대 남자였다. 누워있다가보다는 반쯤 일어나서 앉아 있었는데 그가 호흡하기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그를 본 순간부터 알 수 있었다. 식은땀으로 머리가 젖어있고 연신 가슴을 들썩이며 숨을 몰아쉬고 있는 그

를 보니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는 ‘호흡근’을 사용하는 힘겨운 호흡을 하고 있었다. 정상 호흡 때는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호흡근을 호흡 부전 시에는 의식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전형적인 모습은 환자가 숨을 들이쉴 때마다 쇄골 위 아래가 움푹 들어가며 가슴을 들썩이는 모습이다. 정확히 그가 그런 모습으로 주변 공기를 모두 빨아들일 것 같은 호흡을 하고 있었다.

그의 폐에는 분명 그의 몸에서부터 자라났지만 그를 죽음으로 몰아갈 덩어리가 자리 잡고 있었다. 폐암. 사람의 힘으로는 멈출 수 없는, 흡사 제동장치가 고장 난 탱크 같은 무지막지한 암이 차근차근 그의 생명을 정복 중이었다. 흉부 사진에서 험악한 모양의 폐렴이 뚜렷하게 보였고 동맥혈 채혈 결과는 그의 몸에 산소가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내는 생기없는 알람소리와 환자를 오히려 질식시킬 것만 같은 고압의 산소 소리만이 적막한 병실 복도에서 규칙적으로 불안감을 일깨웠다. 경험이 부족한 내가 봐도 그에게 곧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상황이 올 것이었고 인공호흡기를 연결하려면 기도에 관을 넣는 기관삽관이라는 처치를 해야 했다. 완치가 불가능한 질환을 가진 환자, 특히 말기 암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적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한 번은 환자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 어느 정도의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는지, 치료중 지켜지지 않을 지도 모르는 존엄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인공호흡기를 중단했을 때 안 좋은 결과가 예상되면 기관삽관을 의료진의 임의대로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삽관 전에 충분한 안내와 상의가 필요한 것이다. 확실하게 인공호흡기가 필요 없는 상황이 되어야만 관을 제거할 수 있었다. 환자의 상태

가 좋아지거나 혹은 그가 더 이상 숨을 쉬지 않거나.

그는 병원에 함께 있어줄 가족이 아무도 없다고 했다. 소리 내어 입 밖으로 꺼 내기도 무서운 암이라는 무거운 질병. 그동안 혼자 그것을 짊어졌을 그의 외로움을 감히 상상할 수 없었다. 어쩌면 암보다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무게가 더 무거웠을지도 모르겠다. 그의 인생은 어땠기에 늦은 새벽,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할 사람이 생면부지 어린 의사밖에 없는 것일까. 대개 죽음과 관련한 이야기는 보호자를 통해 전하는 것이 환자에게 덜 충격적일 수 있다. 그래서 보호자에게 먼저 환자 상태를 설명하고 앞으로의 치료에 대한 의사를 묻는 경우가 많았다. 환자와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지, 없다면 서두르시는 게 좋겠다고.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건 핑계일 뿐이고 죽음에 대해 말하는 어려움을 그들에게 넘기는 것뿐일지도 몰랐다. 당신은 곧 죽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당신의 가족은 곧 죽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편이 훨씬 편했다. 그러나 그는 보호자가 없으니 나에게서는 선택지가 없었다. 지금 그와 직접 이야기를 해야 했다.

“환자분 많이 힘드신가요? 그래도 이 동의서 한 번 봐주세요 해요. 폐렴이 심하고 점점 호흡이 힘들어지셔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그런데 인공호흡기는 한 번 시작하면 좋아지기 전까지 중단을 못해요. 폐렴이 확실히 나을지 아직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공호흡기를 안 하면 돌아가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의하실 보호자는 정말 안 계신가요?”

“...”

그에게는 비현실적으로 들렸을 설명을 하면서 미세하게 목소리가 떨렸다. 그가 알아챘을까. 그는 아무 대답이 없었고 숨 막힐 듯한 침묵이 처치실 공기를 더욱 차갑게 했다. 숨이 차서 대답을 할 수 없었던 것일까, 아니면 본인도 죽음이 성큼 다가온 것을 직감하고 있어 별로 대답하고 싶지 않았던 것일까.

어쩌면 삶과 죽음이 더 이상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을지도 모르겠다. 동의서와 펜을 들고 있는 손이 초라했다. 그의 두려움을 이토록 억지로 무시하면서 이까짓 종이를 내밀고 있는 모습이 부끄러웠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얇은 바늘 수백 개가 전신을 찌르는 듯한 불편한 느낌이 온몸을 휘감았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끈거리는 이 느낌을 떨쳐버리고 싶어 도망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감정 없는 무미건조한 소리로 아무것도 확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했고 위로 한 마디 건네지도 못했다. 그는 자신의 죽음과 직결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고작 이 정도의 설명을 하고 선택을 하라니, 그에게 선택을 떠넘겨버린 꼴이었다. 의사로서는 가장 미숙한 시절의 나에게, 가장 확신 없는 목소리로 들었을 그의 생이 길게 남지 않았다는 소식. 그는 내 목소리에서 무엇을 느꼈을까. 나 역시도 두려워하고 있음을 느끼지는 않았을까. 나에게서는 의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고민하게 되는 밤이었다. 오히려 지식이 있기에 더 잔인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좌절감이 덮쳐왔다.

환자는 끝까지 확답을 주지 못했다. 잘 모르겠다고, 그저 숨이 차다고만 말했다. 상태가 약간 좋아지는 듯하여 추가 처치는 없었으나 처치실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1년 차의 버거움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날에는 3년 차 선배가 처치실 환자를 대신 봐주었다. 그날 오후쯤 환자가 다시 안 좋아져서 중환자실에 내려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중환자실에 내려갔다는 것은 결국 그가 기관삽관을 하고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작한다는 이야기였다. 중환자실 담당 전공의로 주치의가 바뀌면서 환자는 내 손을 떠났지만 세세한 내용까지 글에 담아낼 수 있는 걸 보니 지금까지도 나는 그를 완전히 떠나보내지 못한 모양이다.

시간이 흘렀고 많은 것을 배웠다. 난생처음 누군가에게 죽음에 대해 설명할 책임이 생겼던 그날,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사투하던 그때 그 청년은 이제 누군가에게 죽음을 설명하는 것이 별로 두렵지 않다. 죽음이 내 책임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치료하는 법을 배웠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확실히 알고 있다. 아무리 말기 암환자라도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라도 환자와 감정적인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깨달았다. 그때 그분을 지금 다시 마주하게 된다면, 그와 독대하여 또 죽음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면 가장 먼저 그의 손을 잡아주고 싶다.

“폐렴이 심해서 인공호흡기가 필요해요. 지금 숨차서 힘드신 것 좋아지려면 꼭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암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 고비는 잘 넘기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선택을 그에게 넘기지 않고 내가 가진 지식으로 방향을 정해주는 것, 살짝 미소를 띠는 것, 그리고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힘주어 말하는 것. 이것이면 충분했을지 모른다. 확신의 목소리만으로도 그의 두려움과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지

않았을까. 최선을 다한 뒤에는 결과에 상관없이 나도 그를 떠나보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의 집으로든, 돌아올 수 없는 먼 곳으로든, 후회 없이.

더 이상 죽음을 설명하면서 두렵지 않다는 것, 환자를 마음속에서 훌훌 떠나보낼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슬픈 일일지 모른다. 그렇지만 확신 없는 말로 되려 환자에게 상처와 두려움을 주는 의사가 되지는 말자고 생각했다. 시간이 갈수록 냉정하면서도 따뜻할 수 있음을 배우고 있다. 어쩌면 냉정하기 때문에 더욱 따뜻한 것일지도 모른다.

새벽 3시, 처치실 간이침대에 앉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외로운 청년의 어깨를 토닥여주고 싶은 오늘이다. 병동의 많은 환자들을 밤새 지켜야 하는 상황보다 혼자 외롭게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어떤이의 손 한번 잡아주는 것이 어쩌면 더 두려웠던 그때의 내 어깨를.



제	2	0	회
보	령		
의	사	수	필
문	학	상	

거즈 아홉 장

동	상		
---	---	--	--

문윤수 대전을지대학교병원 · 외과

“환자 전원 보내려 합니다. 가다가 죽어도 가겠습니다.”

전화기 통해 다급히 외이도를 거쳐 바로 뇌 속 깊이 때린다. 이 상황을 어찌 모면해볼까 하는 간사한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이미 환자 보호자, 그 병원 의사는 주치의의 나로 바꾸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위 두 문장은 극히 일부였으며, 그보다 더한 설명이 이어졌다. 간경화 기왕력과 여기저기 출혈 소견들, 혈압 올리는 약물들과 들쭉날쭉한 혈액 검사 수치들을 전해 듣고 있자니, 이미 내 앞에서 배안 가득 수없이 피 흘리고 있는 내 환자로 느껴졌다. 마지막으로 전원 보내는 선생님의 한마디,

“배 안에 거즈 아홉 장 넣었습니다.”

배 안에 거즈는 예전에는 의료사고 일종인 수술 중 사용한 거즈를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최근 지혈 효과를 위해 일부러 거즈를 넣는

치료 방법으로 사용한다. 동시에 ‘거즈 아홉 장’이라는 흐려진 말꼬리 속에 아마도 거즈 아홉 장 넣고, 보호자들에게 한차례 예비 사형선고 하였다는 절박함이 나에게 전해졌다.

한 가장이 어느 날 불의의 사고로 수술 받은 후, 가족은 수술을 집도한 의사로부터 가장 듣고 싶은 한마디 말은 “수술은 예정대로 잘 되었습니다, 잘 회복한다면 생명에 큰 지장 없습니다”라는 말이다. 하지만 가족에게 처음 병원 의사는 아마도 절망의 늪에서 최악의 부정적인 상황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 마치 예비 사망선고처럼 말이다.

가족은 그 말이 거짓이길 바라며, 반드시 살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을 안고 한 시간 넘는 거리의 내가 있는 병원으로 왔다. 나는 J의 전체적인 몸 상태, 배속 상황을 떠올리며, 모니터에 보이는 절박한 숫자들, 혈액검사 결과가 한두개씩 나오면서 동시에 여기저기 난리치고 있는 숫자들을 바라보았다. 이제 보호자를 만날 차례다. J 가족을 처음 보는 순간, 아주 오래전 전쟁 영화가 떠올랐다. 열기설기 싸여진 짐 보따리 옆에 있는 피난민 같았다. 이미 너무나 울어버려 눈과 얼굴이 퉁퉁 부었지만, J의 아내와 아들과 딸, 세 가족은 내 입에서 희망 섞인 말 단 한마디라도 나오길 간절히 바라는 눈빛이었다.

한 시간여 전, 전화기 통해 내 대뇌에 굵게 새겨진 ‘거즈 아홉 장’이란 단어를 생각하며 다시 환자 뱃속을 그려보니 머릿속에 도저히 희망과 조금이라도 연관된 단어들 이 떠오르지 않았다. 난 냉정했다. 그리고 잔인하게 말해버렸다.

“첫 수술 당시 너무 많은 출혈이 있었고, 기존에 앓고 계시던 간경화와 더불어



심각한 응고장애가 발생하여 출혈이 안 멈출 경우 생명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희망의 싹을 떡잎에서 잘라버리는 말투로 말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눈물을 흘쩍이던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우리 아빠... 이제 살 수 있나요?”

아빠를 간절히 살리고 싶은 가족에게 나는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예비 사망 선고를 하였다. 다시 환자에게로 가려는 찰나, 냉정한 내 말을 듣자마자 두 눈에서 눈물이 푹 떨어지는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아들과 눈이 마주쳤다. 아들 눈빛과 눈물은 순간 나의 본분이 죽음 문 앞에 있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사망선고, 예비 사망선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작은 꼬나풀이라도 있다면 이어 붙여서 연결시켜, 피나고 고통스러운 환자들에게 삶의 연장에 대한 희망 갖게 해주는 것이 내가 할 역할이자 동시에 잘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였다. 처치 중인 J 곁으로 가려던 나는 발걸음을 돌려 말했다.

“하지만 제가, 저뿐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 힘을 모아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눈물 한 방울을 더 흘리며, 고개 숙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 하였다.

최악의 상태에서 전투를 맞이한다. 한 번 더 예비 사망선고를 하였지만, 내 스스로 내뱉은 말이 거짓이기를, 환자 운명을 바꾸기로 다시금 마음먹었다. 머릿속에 아홉 개 거즈를 항상 넣어두고 J를 바라보며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조금이라도 살고자 하는 쪽으로 치료 방향기를 조율해갔다. 제아무리 이전 병원에

서 집도한 수술기록지와 검사 정보가 합쳐진다고 해도 첫 수술 당시 거즈 아홉 장 넣으면서 배를 임시로 봉합한 첫 집도의사의 절박한 심정을 모르기에 환자는 자꾸만 어렵고 힘들게만 느껴졌다. 하지만 출혈이 무섭고, 환자 상태가 두렵기에 언제까지 거즈를 배 안에 넣고 기도만 하는 것은 외과의사 본연의 역할이 아니다. 이제 환자 살리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는 의사 역할을 해야 한다. 바닥과 천장을 향해가던 혈액 수치들도 정상으로 조금씩 방향을 잡아가는 노력을 하나씩 하는 사이, 두 번째, 내가 집도하는 첫 수술을 결정하였다.

역시나, 출혈은 생각했던 이상으로 여기저기 심했다. 거즈 아홉 장을 하나씩 건어내고 배 안 모든 출혈 부위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최대한 출혈을 잡는 노력했지만, 이번이 J의 마지막 수술이 되기에 무리였다. 수술을 마치고 다시 J를 중환자실 그 본래 자리로 옮긴 후, 가족을 맞이하였다.

“거즈 아홉 장으로 출혈부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 거즈를 빼내고 다시 지혈하는 수술을 했어도, 아직 출혈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거즈 일곱 장을 새롭게 넣어 압박했습니다.”

온 가족은 또 다시 눈물로, 나에게 대답한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딸이 물었다.

“우리 아빠, 이제 살 수 있죠? 선생님께서 새로운 거즈 일곱 장을 넣고 수술해 주셔서 살 수 있죠?”

입안에서 또 다시 대량출혈, 간경화 등이 뻘뻘지만, 내 입으로 꿀꺽 삼켜버리고 말했다.

“저뿐만 모든 의료진들이 힘을 내서 노력하겠습니다. 살 가능성을 조금씩 높

여가며, 생명 끈을 조금씩 늘려가겠습니다. 가족 모두 함께 힘을 내봅시다!”

그렇게 또 이틀이 지나고 배액관과 상처 사이로 나오는 출혈이 눈에 띄게 줄었다. 마지막 수술이 되겠다는 기대와 다짐으로 수술실로 향했다. 내가 직접 확인하고 압박하면서 넣었던 거즈 일곱 장을 빼내고 출혈 부위를 확인하며 하나씩 하나씩 지혈했다. 애초 간경화, 다발성 손상으로 완벽한 지혈을 기대하기는 무리지만, 처음 거즈 아홉 장을 빼었던 상황에 비해 이번이 마지막 수술이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이 보였다. 마지막까지 모든 지혈 방법을 동원하며, 장기들을 꺾매주고, 지혈 후, 배를 완전히, 완벽히 닫았다. 이번에는 아홉 장, 일곱장도 아닌 단 하나 거즈도 배 안에 넣지 않았다. 마지막이라고 바라는 수술을 마친 후 가족과 마주섰다.

“이제 아빠 배 안에 거즈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즈가 눌러주는 압박이 아닌, 아빠 스스로 힘으로 출혈을 이겨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저 중환자실 안에서 힘내는 아빠처럼 가족 모두 힘내고, 저 또한 더 힘내서 치료하겠습니다.”

출혈 산을 가까스로 넘어가니, 간경화 뿌리에서 시작된, 대량 출혈이라는 기쁨까지 부어져 발생 가능한 모든 합병증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였다. 폐렴부터 시작하여 상처 감염, 나중에 신부전, 최악인 간성혼수 직전 상황까지 갔다. 하지만 J에게는 상처를 소독해주고, 약 주는 나와 의료진에 더해 한 시도 떨어지지 않고 지켜주고 기도해주며 사랑을 보내는 가족이 있다. 제 아무리 간경화 악성 뿌리에서 시작하여도 가족 사랑과 살고자 하는 환자의 의지가 더해지니,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겨울 초입에 온 환자는 한겨울, 새해 첫 날을 지나 봄맞이를 함께하였다. 그 사이 환자 상태는 훨씬 나아졌고, 스스로

힘으로 밥도 먹고, 비로 가족 부축이 있지만 조금씩 걷고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이제 나와 간단한 농담도 하는 사이가 된 J는 나에게 묻는다.

“사고 나서 OO병원에 처음 간 것은 아는데, 어떻게 이곳 병원으로 온 거죠?”

“거즈 빼러 왔답니다. 그 동네 거즈가 시원찮아서, 여기로 새로운 거즈로 갈러 왔어요!”

현 거즈와 새 거즈……. 역시나 무슨 영문인지를 모르는 J를 바라보며, 현 거즈 아홉 장이 가까스로 J의 배안 핏줄기를 막고 있었던 그날 기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다.

어느 날, 지난 몇 달 동안 한시도 남편 곁을 떠나지 않던 부인이 말했다.

“시골집에 좀 다녀와야겠어요. 이틀 비워도 되겠죠? 남편도 이제 살아났으니, 이제야 집에 복숭아나무가 걱정되네요. 복숭아나무 전정치기 하러 가야겠어요.”

“환자분은 저와 딸과 함께 잘 치료해주고, 돌봐주고 있을 테니, 복숭아나무가 지 잘 치료해주고 오세요. 이왕이면 불필요하게 거즈처럼 너털한 가지들을 다 쳐내고 오세요.”

시골집에 가는 이유는 너무 오랫동안 비운 집도 보지만, 복숭아나무 가지 전정이 더 큰 이유였다. 지난 겨울 오로지 남편 걱정에 온 사랑을 베풀었다면, 이제 집안 살림 밀천이자 병원비를 내고, 가족 생계를 책임질 복숭아나무에게도 사랑을 나누어줄 차례이다. 복숭아나무 전정을 통해 마치 내가 남편 배속에 거즈를 빼내며 수술하는 마음으로 부실한 나무 가지들을 정리하며 사랑을 주어, 한 여름에 풍성하고 달콤한 복숭아 열매 맺기를 기원하였다.

두해에 걸쳐 내 담당 환자로 입원하였던 J는 따뜻한 봄 햇살을 맞으며 무사히

가족과 그리운 집으로 퇴원하였다. 중증외상환자를 치료하는 외상외과의사로 살면서, 내 입으로 가족들에게 너무나 가혹했던 예비 사망선고가 또다시 거짓말이 되었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다시 계절이 바뀌어 무더운 여름 어느 날, 병원에 내 앞으로 복숭아 한 상자가 전해왔다. 커다란 복숭아 아홉 개와 J 부부의 감사편지가 있었다. J 가족의 정성을 생각하여 복숭아 상자를 꾸역꾸역 들고 집으로 향했다. 역시나 아들과 딸, 부인은 나보다도 탐스러운 복숭아를 반갑게 맞이해주었다. 바라보기만 하여도 너무나도 달콤하고 향긋한 복숭아가 머릿속 미각 중추 속에 이미 녹아내렸다.

아홉 개 거즈를 뺏속에 넣고, 살고자 하는 실낱같은 희망을 갖고, 나를 만난 J와 J 가족, 그 아홉 개 거즈가 가족의 헌신적인 사랑이 더해져 모두 행복하게 살게 해주었고, 경이롭게 거즈는 너무나 맛있는 복숭아로 변신하였다.

나는 또다시 피와 사투하는 환자를 앞에 두고, 절망의 낭떠러지 바로 앞에 있는 보호자를 만난다. 동시에 내 입에서 거짓말하기를 바라는 예비 사망선고 순간을 또 다시 맞이한다. 하지만 나는, 아홉 개 거즈가 탐스러운 복숭아로 바뀐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기에, 늘 하던 대로 그렇게 최선을 다한다.



제	2	0	회
보	령		
의	사	수	필
문	학	상	

빛진 자의 마음으로

이영준 삼성이영준비뇨기과의원 · 비뇨의학과

동	상		
---	---	--	--

오전 일과를 마치고 점심 먹으러 나가는데 막 문자가 들어온다.

“저희 아버님 H 씨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새벽예요.”

문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탁 막혀왔다. H 씨, 나는 나도 모르게 중얼중얼 속삭였다. 아픈없는 곳에서 자유하시기를, 송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를 빌고 또 빌며 그분의 영혼을 축원했다.

2002년 서산의료원에서 비뇨기과 의사로 근무할 때였다.

한밤중에 응급실에서 연락이 왔다. 비뇨기 환자가 왔는데 응급의학과에서 보기 힘들다고, 직접 나와서 해결해달란다. 필자가 전립선비대증을 요도 내시경으로 수술했던 환자였다

환자는 65세로 비교적 젊고 건강했다. 그날이 수술 후 3일째였는데 급성 출

혈로 인해 급성요폐가 온 것이다.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방광을 세척하려고 소변줄을 삽입하는데 자꾸 피딱지에 막혀 실패하니까 비뇨기과 의사를 호출한 것이다.

20번 소변줄이라 가늘어서 피딱지가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24번 소변줄을 넣으려 시도하였다. 그런데 들어가지 않아 22번 소변줄로 다시 시도하였다. 또 실패하였다. 할 수 없이 처음에 썼던 20번 소변줄을 다시 삽입하는데, 들어가던 소변줄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않았다.

요도에 소변줄을 넣을 때마다 환자는 “나 죽는다, 배가 터질 것 같다”라고 소리쳤다. 환자가 고통으로 요도에 힘을 주어서 그렇겠지, 생각한 나는 마취과의 도움을 받아서 척추마취를 한 뒤 폴리스타일렛이란 장비를 사용하여 22번 소변줄을 삽입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자 일주일 동안 소변줄 주변으로 피가 나왔다. 혹시 외요도 괄약근이 파열된 것은 아닐까, 몹시 걱정되었다.

일주일 뒤 소변줄을 제거하자 환자는 “어휴 이제 살겠습니다. 정말이지 응급실에서 과장님 아니면 죽을 뻔했습니다. 아니 응급실 선생님들은 소변줄 하나를 못 넣어요? 그것이 그렇게 힘든 겁니까!” 하고 물었다. 마취의 결과가 환자에게는 나의 능력으로 인식되었고 그날 나의 행위가 앞으로 어떤 일을 가져올지 나는 터럭만큼도 눈곱만큼도 알지 못했다.

응급실 치료 일주일 뒤 환자가 외래로 왔다.

“과장님, 어찌 된 일인지 소변이 계속 흘러요. 마려운 느낌도 없어요. 하루에도 기저귀를 열개는 더 버리는 것 같아요. 수술 전에 과장님께서 처음 며칠 동안은 소변이 흐를 수 있다고 했는데, 언제쯤이면 멈출까요?”

환자의 질문에 ‘아이쿠 이거 내가 큰 사고 쳤구나!’ 하늘이 노랗게 변했다.

소변이 흐르는 것은 폴리스타일렛으로 소변줄을 밀어 올릴 때 외요도 괄약근을 파열시킨 결과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응급실에서 소변줄 삽입을 시도하여 여러 번 실패하였으면 방광에 소변줄을 꽂는 방광루를 설치했어야 했다. 그리고 몇 주가 되더라도 요도의 상처가 스스로 아물기를 기다렸어야 했다. 그게 정답이었다. 그러나 20년 전 나는 정답을 몰랐다.

전립선비대증을 수술할 때마다 나는 그때가 떠올라 조심하고 또 조심한다. 왜 방광루 요법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로 인해 환자는 오랫동안 기저귀를 차고 힘들게 살아야 했는데 병원에 오면 큰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모든 게 당신 업보라고 했다. 수술 후 합병증으로 발생한 요실금 상태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분은 1년이면 한두 번 내원하여 “신기하게 2~3일 전부터 요실금이 싹 없어 졌다”라며 좋아했다. 소변검사를 해보면 요도염이 심했다. 심한 염증으로 요도 점막 부종이 일시적으로 외요도 괄약근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항생제를 사용하여 요도염을 치료하면 다시 요실금 상태가 되었으니까. 성기 주변은 기저귀 사용으로 습했고, 회음부는 곰팡이 증식으로 가려움증이 심하였다. 그렇게 그분이 11년 동안 고생하고 있을 때였다.

2013년 봄 비뇨기학회 세미나에서 전립선암 수술 후 발생한 요실금 환자에게 인공 외요도 괄약근을 심어 치료한다는 희소식을 접했다. 기쁨에 들뜬 나는 얼른 전화했다. 하늘에서 주시는 큰 선물 같았다.

“내일 당장 우리병원으로 오세요. 제가 치료해드릴게요.”

다음 날 나는 종일 그분을 기다렸다. 그런데 알았다고, 가마고 하셨던 그분은

퇴근 시간이 되어도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전화하기를 여러 번, 역시 오지 않았다. 할 수 없이 그분의 주소지로 직접 찾아갔다.

“이젠 적응이 되어 그런대로 살아요. 제겐 요실금이 걱정이 아니라 저놈이 걱정이예요.”

그분이 가리키는 마당에는 신발로 땅을 파며 놀고 있는 장성한 아들이 있었다. “우리 막내랍니다.”

76세인 그분은 1남 4녀를 두었는데 딸 넷은 출가하였고, 부인은 1년 전 폐암으로 돌아가셨으며 지적장애가 있는 막내아들과 둘이 살고 있었다. 결국 병원에 오려면 누군가 막내아들을 돌봐줘야 하는데, 그럴 사람이 없어 못 온 것이다.

사정이 참으로 딱했지만 그래도 나는 꼭 치료해드리고 싶었다. 그래야 나도 자유로울 수 있을 터였다. 대학병원으로 가서 인공 괄약근 수술을 하자고 설득했다. 요실금 없이 살 수 있다고 자세히 설명도 했다. 그분은 아들을 돌볼 사람도 없고 그렇게 큰돈을 들여 수술할 처지도 아니라며 거절했다.

“시간만 내श्य요. 저는 어르신 수술 이후 지금까지, 11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 습니다. 그러니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모든 비용은 제가 부담할 테니, 아드님도 어떻게 하든 제가 돌볼 테니, 시간만 내주세요.”

간청하고 또 간청했다.

“아닙니다. 이젠 요실금은 걱정이 아닙니다. 저 아이가 걱정입니다.”

그분은 끝내 고개를 저었다. 포기할 수 없었던 나는 이후에도 여러 번 전화해서 수술하자고 권했다. 그때마다 “원장님 성의 알았습니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할 뿐 그분은 끝내 오지 않았다.

찾아오는 환자 중에 같은 동네 사람이 있을 때마다 나는 그분의 안부를 물었다. 심장이 안 좋아서 약을 잡수신다고 했다.

“아들은 좀 떨어지는 애가 있었지, 아마 몇 년 되었을 거야. 동네 저수지에 빠져 죽었어. 이젠 혼자 살어. 딸이 넷 있는데 시집가서 다들 경기도 어디에 살지 아냐.”

다음 날 나는 다시 전화했다. 이제 수술하기는 연세가 많지만, 어찌 사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뭐라도 도울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였다. 그런데 통화가 되지 않았다. 알아보니 요양원에 계신다고 했다. 그것이 마지막 그분 소식이었다.

소천하셨다는 소식에 송구스러움이 다시 샘솟는다. 그분이 감당한 고통을 내가 어찌 다 짐작할 수 있을까. 내가 침착하게 하복부에 방광루를 설치했다더라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나의 경솔함으로 인한 그분의 고충을 어찌 다 갚아야 할까.

수술할 때 내시경으로 섬세하게 살피면서 전립선 출혈 부위를 지혈했다더라면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 2013년도에 서울에 가기 싫어하시던 그분을 우리병원으로라도 모셔서 용기 내어 내가 직접 인공 괄약근 수술을 할 수도 있었다. 그랬더라면 조금이라도 편히 사실 수 있지 않았을까.

섭생의 문제일까, 환경의 문제일까 아니면 장수하기 때문일까, 5년여 전부터 노인 전립선비대증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환자를 볼 때마다 나는 그분이 떠오른다. 그래서 수술 전날, 잠자기 전 환자의 전립선 초음파 이미지를 되새기면서 가상현실에서 수술을 시행한다. 그리고 다음 날 빛진 자의 마음으로 수술



실에 들어간다. 그분의 전립선이라 생각하며 최대한 빨리, 출혈은 최소화하면서 아주 얇게 깎으려고 최선을 다한다.

그러다 보니 나의 기술은 향상되었고, 환자들은 빨리 완쾌했다. 이는 전적으로 그분이 치른 희생의 대가였다. 수술이 잡힐 때마다 가상현실에서 수술에 임하는 것도 그분이 가르쳐준 의사로서 자세다.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하는 나는 아픔 없는 곳에서 자유하시기를, 송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꾸만 속삭였다. 목울대가 뼈근해온다.

제	2	0	회
보	령		
의	사	수	필
문	학	상	

다시 새해 첫날

주영만 우리내과의원 · 내과

동	상		
---	---	--	--

눈발이 날리고 있었다.

나는 이제 잠을 청하려고 누워있다. 끊어질 듯 이어질 듯 하루 종일 눈발은 날리고 있었고 하루의 무거운 눈꺼풀을 닫고 잠을 청하고 있는데 어둠 속 잠의 좁고 검은 구멍 속으로, 오늘도 나는 어떻게든지 불면(不眠)을 넘어 그 구멍으로 들어가서 날마다처럼 오늘의 그 낯장을 넘기고 싶었다. 오늘은 다시 새해 첫날, 순례(巡禮)길 같았던 오늘 하루가 또 하나의 우연처럼, 가벼움처럼 흘러갔다.

눈발이 날리고 있었다

아침에 서산 간월암(看月庵)에서 본 새해 첫날의 하늘은 하늘 전체가 짙은 회색빛 구름으로 잔뜩 흐려있었다. 그 속에 파묻힌 채 떠 있는 해는 간신히 그 등

근 형체만 알 수 있어 오히려 신비롭게 보여, 해가 아닌 등근달처럼 보였다.

간간이 눈발은 날리고 검푸른 바다는 출렁이고 있었다. 그 하늘의 해와 바다를 보며, 사람들은 티벳의 타르초처럼 좁다랗고 긴 쪽지종이에 각자 새해 기원(祈願)을 적은 후 그 주문(呪文)을 간절하게 외우는 것처럼 바람에 펄럭이도록 바다를 향한 여러 층의 간월암 울타리 난간 줄에 그것을 매듭으로 정(淨)한 마음을 묶어 놓았다

눈발이 날리고 있었다.

안면도 바람아래해변에서는 저 멀리 수평선이 온통 짙은 회색빛 하늘과 맞닿아 있었다. 군데군데 흰 눈이 쌓여있는 아무도 없는 넓은 모래사장을 지나 파도가 넘실거리는 바닷가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태고(太古) 원시의 모습 그대로 바다는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그 원시 속에서 수많은 상념(想念)들은 왔다가 부서지는 파도와 바람과 함께 날리는 눈발처럼 흩날렸다. 그러는 동안 순식간에 세상은 온통 하얗게 눈이 덮였다.

눈발이 날리고 있었다.

서산 상왕산 개심사(開心寺)에 들었다. 일주문을 지나 개심사 입구 세심동(洗心洞)의 눈 쌓인 돌계단을 천천히 걸어 올랐다. 직사각형의 개심사의 연못에 도착했을 때 연못은 얼어 있었고 그 위에 흰 눈이 쌓여 있어서 연못에 비친 나의 참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연못 주위에서 지저귀는 청아한 새소리들로 마음이 맑아졌다. 한층 가벼워진 마음으로 해탈문(解脫門)을 지나려는데 해탈문 앞에서

톨스토이의 소설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서의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쁘로뿌스찌(가게 해줘)'라는 말이 뜬금없이 생각났다. 그리고는 가던 걸음을 잠시 멈추고 나도 속으로 '쁘로뿌스찌'를 되뇌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해탈문을 지나 검박하고 안온한 대웅전과 그 앞의 조그만 마당, 심검당 등이 있는 부처님 세계에 편안하게 들었다.

눈발이 날리고 있었다.

오후에는 서산 용현리 마애석불을 만나러 갔다. 조그만 다리를 건너 가야산 계곡 한쪽 절벽에 있는 마애석불로 향하는 돌계단을 올랐다. 덮인 눈이 미끄러워 난간에 의지해 조심조심 한 계단씩 오르면서도 천년의 미소를 볼 수 있다는 기대에 마음이 환해졌었다. 불이문(不二門) 앞에서는 다시 그 '쁘로뿌스찌'가 생각나더니 나도 모르게 그 말이 저절로 불쑥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쁘로뿌스찌!" 쪽문처럼 조그만 불이문을 지나 계곡 절벽에 은밀하고 신비하게 숨어있는 그 마애석불을 만났다. 보는 각도에 따라 조금씩 그 표정을 바꾸지만 마애석불은 '아무 일 없다'라는 듯 날리는 눈발 사이에서도 한결같은 은은한 웃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나는 그 푸근한 미소를 오랫동안 가슴에 담았다.

1) 이반 일리치의 죽음: 톨스토이의 소설. 이 소설에서 톨스토이는 죽음으로 가는 길을 '검은 구멍'으로 들어가고 통과하는 것으로 묘사하기도 했으며 주인공인 '이반 일리치'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증오했었던 아내와 착한 어린 아들에게 한 말인 러시아어, '쁘로뿌스찌'는 원래는 주인공이 마지막 말로 "쁘로스찌(Прости, 용서해 줘)"라고 해주고 싶었으나 톨스토이가 의도적으로 발음이 비슷한 '죽음으로 가게 해줘'라는 의미의 '쁘로뿌스찌(Прощи, 가게 해줘)'라고 말이 헛 나온 것처럼 묘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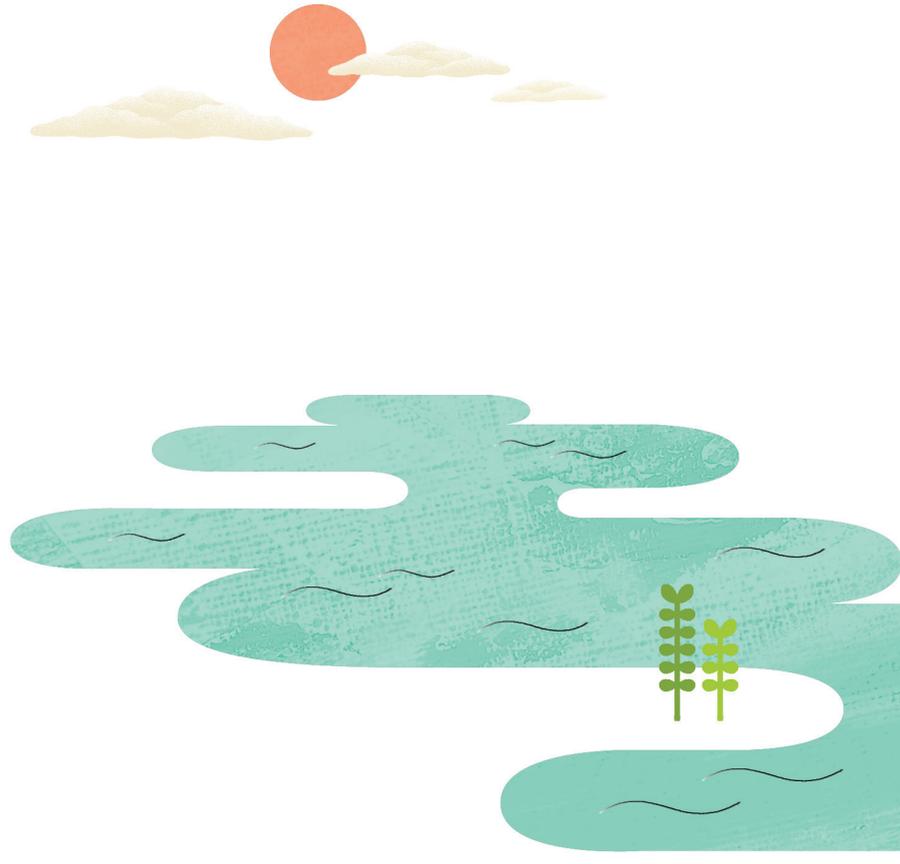
눈발이 날리고 있었다.

꿈이었을까? 아직도 눈발이 날리고 있었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오늘도 잠 자리에 누워서 '이반 일리치'처럼 검은 구멍 속으로 들어가서 하루의 마지막을, 그 낯장을 넘기려 안간힘을 다하고 있었다. 날마다 아침이면 세상으로 나오지만 그 매일매일 하루를 마치려면 불면을 넘어 이 세상에 처음 나올 때 빠져나온 좁은 그 구멍, 죽음처럼 검검하고 좁은 그 구멍 속으로 들어가 구원(救援)처럼 하루를 단는, 그렇게 하루의 낯장을 넘기고 싶었다. 아침에 서산 간월암의 울타리 난간 줄에 묶어 놓은 정한 마음을 기억했다. 우연인가? 가벼움인가? 까닭도 모르게 불시착(不時着)한 꿈의 이 초록별, 그리고 이제껏 하루하루를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무엇으로 지내고 견디며 살아왔던가? 하루하루는 같은 제목으로 매일 반복되고 반복하는 연극 같지만, 그리고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날마다는 조금이라도 분명 어제와 다르지만, 지금은 그것도 그 낯장 넘어가는 속도가 예전과는 많이 다르게 도저히 가능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흘러가지만, 아직도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무엇, 그것은 꿈속에서 다시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 날마다 아침이 오고 또 밤이 오는 것처럼 날마다 꿈의 문(門)을 열고 다시 그 꿈속으로 들어가는 것인가? 어둠 속에는 아직도 눈발이 날리고 있었다.

눈발이 날리고 있었다.

그 꿈속의 꿈속을 지나, 계속해서 계속해서 다시 그 꿈속의 그 꿈속을 지나 결국 이름도 예쁜 안면도 바람아래해변의 다시 그 태고(太古)의 원시에 닿았다. 그 원시의 바람아래해변에서는 멀리 수평선은 여전히 입을 다문 채 말이 없

있고 파도와 함께 밀려왔다 밀려가던 바람은 그 으르렁거리는 파도 소리와 함께 다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상념처럼 기도(祈禱)처럼 서산 개심사 연못과 대웅전과 심검당과 그 앞의 조그만 마당을 한 바퀴 돌고, 다시 용현리 마애석불의 밝은 곳과 어두운 곳과 엮고 희미한 천년의 미소를 흐릿하게 어루만지고 돌아와 온데간데없는 것처럼, 느닷없는 마주침처럼, 하나의 조그만 돌멩이처럼, 먼지



처럼, 다시 낡은 그 꿈처럼, 비로소 죽음처럼, 아득하게 킁킁한 그 좁은 구멍 속의, 어느새 또다시 새해를 맞이한 새해 첫날 오늘의 마지막 날장을 넘기고 있었다. 아직도 눈발이 날리고 있었다. “쁘로뿌스찌!”

눈발이 날리고 있었다.



제	2	0	회
보	령		
의	사	수	필
문	학	상	
심	사	평	

통찰력과 인품의 향기

글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표현력은 탁월하지만 내용이 부실한 것이 있고 표현력은 다소 서툴지만 내용이 충실한 것이 있다. 그러나 둘 다 좋은 글이라고 할 수는 없다. 표현과 내용이 조화되어 독자를 감동시키는 것이 좋은 글이다. 여기서 내용이란 소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읽는 통찰력과 인품의 향기 모두를 포함한 개념이다. 문학적 표현력은 훈련을 통해 도달 가능한 영역이지만 통찰력과 인품의 향기는 훈련으로 도달 가능한 영역이 아니다. 오랜 세월 삶의 현장에서 얻은 체험과 사유를 통해서만 형성 가능한 전인적인 덕목 또는 체화된 덕목이라 하겠다. 수필은 아무나 쓸 수 있다. 하지만 아무나 쓸 수 없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웃으며 들어갔다가 울며 나오는 것이 수필이란 장르가 아닌가 한다. 최종심에 올라온 수필 23편을 읽는 동안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은 생각이다.

대상에 <표적 항암제와 사랑의 역사>를, 금상에 <전이(轉移)>를, 은상 두 편에는 <부재(不在)의 빛>과 <거리두기>를 넣었다. 그리고 동상에는 <저는 항상 여기에 있으니깐요>, <그렇게 청년이 의사가 된다>, <거즈 아홉 장>, <빛진 자의 마음으로>, <다시 새해 첫날> 다섯 편을 넣었다.

<표적 항암제와 사랑의 역사>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작품이다. 삶과 죽음의 문제, 죽은 자와 산 자의 단절과 결핍의 극복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었다. 대개 그런 문제에 부딪히면 좌절과 절망 쪽으로 기울기 쉬운 법인데, 필자는 물리학자 펜지어스와 월슨의 연구 결과에서 도출해 낸 사생관을 통하여 긍정적인 쪽에 시선을 돌림으로써 산 자와 죽은 자의 아름다운 인연이 죽음으로써 영원히 소멸되지 않고 우주에 빛으로 기록되어 우주 도서관에 보존되어 있어, 우리가 신의 눈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 감지할 수 있다는, 다시 말해서 생자와 사자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연대를 이루고 있다는 사생관은 죽음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실낱같은 희망을 준다. 그런 점에서 높이 평가되어 마땅한 작품이다. 지적이고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내용이지만 외할머니를 닮은 환자를 통해 외할머니를 소환하는 몽타주 기법을 동원하여 구체성을 얻은 데 성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생각들이 모두 작가의 인간적 운기에서 나온다는 사실에 독자는 필자의 인품의 향기에 감동받을 수밖에 없다. 다소 난해해서 몇 차례 숙독하지 않고는 공감하기 어려운 작품이긴 하지만 읽고 난 다음에도 오랫동안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관심을 잡고 놓지 않은 중후하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그런 작품이다. 우리의 캄캄한 하늘에 뜬 작지만 아득하게 빛나는 별 같다.

<전이(轉移)>는 세팅이 잘 된 보석 반지 같은 글이다. 서두와 결미에 “알아서 잘해주세요”란 대사를 반복함으로써 패턴의 효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구성의 완결성을 얻는 데 성공하고 있다. 그리고 인물들의 역학적 관계 설정 또한 깔끔했다. 화자인 인턴이 레지던트가 되는 동안 단골 미용실 수습 미용사가 당당한 헤어 디자이너가 되어있는 상황을 대비시켜 작품을 입체화시킨 솜씨가 돋보였다. 찢찢매는 햇병아리 자신을 안심시키는 환자를 보고 “할아버지는 식은땀에 빠져 익사 직전인 병아릴 건져주었다”고 하고, 자신이 잘 못 짜른 주삿바늘에 “할아버지는 비명을 삼켰다. 그 비명은 배를 타고 내려와

내가 꽃은 주삿바늘 속에 피로 맺혔다”는 것과 같은 표현도 놓치고 싶지 않은 매력이다. 설명하기보다 보여주기 기법을 통하여 입체화시켜 상황을 실감 나게 했다. 기대되는 작가다. 다만 제목이 글의 주제를 대표하는데 적절치 않은 점은 옥의 티였다.

〈부재(不在)의 빛〉과 〈거리두기〉 두 작품 모두 무리 없는 글이었다. 〈부재(不在)의 빛〉은 환자인 정 할머니의 캐릭터가 잘 형상화되었다. 환자와 의사의 관계가 가까워 인간적 온기를 느끼게 한다. 구성상 뒷부분에서 세 개의 단락은 사족이다. 생략했으면 더 완결된 느낌을 주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거리두기〉는 앞의 작품과 대척점에 있다. 앞 작품이 환자와의 관계가 밀접하다면 이 작품은 그런 관계에서 입는 아픔에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리두기를 시도하고자 한다. 하지만 아마도 이 필자 또한 거리두기에 실패할 것이란 점을 암시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결국 두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같은 것이다. 인간관계란 기계적일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인간은 피부와 성별과 직업에 관계없이 따뜻한 피를 가진 존재다. 문학의 기본 사상 또한 그래서 휴머니즘인 것이다.

동상에 든 다섯 편의 작품도 장점이 단점보다 많은 글이다. 앞에서 언급한 평을 참고하면서 심기일전하여 다음에 도전하기 바란다. 인생은 어차피 도전해야 할 그 무엇이니까.

심사위원 | (사)한국수필문학진흥회 고문 손광성
 (사)한국수필문학진흥회 회장 이상규
 (사)한국수필문학진흥회 오세윤, 김애양, 이혜연



Lead with GEMZAR[®]

Gemzar[®] is indicated for NSCLC, Breast cancer, Pancreatic cancer, Bladder cancer, Ovarian cancer, and Biliary tract cancer¹⁾

GEMZAR[®](Gemcitabine)¹⁾

전문약품

【원료 약품의 명칭 및 분량】 이 약(200mg) 1 바이알 중 주성분 젤시타빈염산염 (별규) 228mg 중 젤시타빈 염기로서 200mg / 이 약(1g) 1 바이알 중 주성분 젤시타빈염산염 (별규) 1.14g 중 젤시타빈 염기로서 1g
【효능·효과】 비소세포암) 시스플라틴과 병용하여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암의 1차 치료, 단독투여하여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암의 고식적 치료 (폐장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폐장암의 1차 치료, (방광암) 시스플라틴과 병용하여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방광암 (유방암) 임상적으로 급기가 아닌 이상 이전의 안트라사이클린계 약물을 포함한 보조화학 요법에 실패한 국소적으로 진행된 유방암 또는 전이성 유방암에 파클리탁셀과 병용 (난소암) 백금화합물 요법을 완료하고 최소 6개월 후 재발된 전이성 난소암 환자의 치료로 목적으로 카보플라틴과 병용 (담도암) 화학요법 치료를 받은 경험이 없는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도암에 시스플라틴과 병용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사용설명서 참조 **【제조사】** Eli Lilly and Company, Indianapolis, Indiana 46285, 미국
【수입판매원】 서울특별시 중로구 창경궁로 136 보령빌딩 (우) 03127 Tel.080-708-8088/소비자상담실 Fax. (02)741-5291 http://www.boryung.co.kr ※ 보다 자세한 정보는 제품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References

1. 식약처, 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 젤자 제품 허가사항(Accessed on 2020,01,25)